

강진군, '드라마 촬영지 급부상' 2020년 관광 명소화 기대

JTBC '나의 나라' 제작지원...드라마·영화 등 다수 촬영
"지속적 관광 콘텐츠·여행상품 개발...국내외 홍보 계기"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나라'의 제작지원을 통해 강진군 관광지 명소화 및 여행상품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나의 나라' (연출 김진원, 극본 채승대·윤희정, 제작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의 제작지원을 통해 '나의 나라문화전전문유한회사'는 양재중, 우도환, 김실현 등 최고의 라이징 배우들과 장혁, 김영철, 안내상, 장영남 등의 굵직한 연기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여 제작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조선의 건국과정 속 사병과 민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 굵은 서사와 빠른 전개, 영화 같은 영상미를 통해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10.19. 기준 5.2%)하고 있는 중이다.

또 매회를 거듭할수록 섬세한 대본과 연출이 만들어내는 눈 뿜 수 없는 압도적인 흡입력과 각자의 캐릭터 속에 완전히 녹아든 배우들의 숨 막히는 열연으로 웰메이드 사극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JTBC '나의 나라' 외에도 강진군에서 2019년 제작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는 11월 방영예정인 MBC '하자있는 사람들', 방영을 마친 KBS '저스티스', KBC '환상의 타이밍', 영화 '타짜3' 가 있다.

군은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와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국내를 넘어 한류 열풍으로 해외 대중들에게 홍보 파급력이 높은 드라마 제작 지원을 결정했다"며, "드라마 속 장소를 관광 명소화하여 강진군을 국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강진만의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10월 26

일부터 11월 3일 까지 9일간 제4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주말 약 3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개최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체험 및 전시·공연 등 7

개 분야 41개 단위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바다갈대 숲 둘레길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28일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갈대숲의 남파랑길 데크길을 걸으며 가을추위를 만들고 있다.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

10.18.금 ~ 11.3.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민원 해결·납세자 권익보호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방식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앞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10월까지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에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고시하며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공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나 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올해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10월 4주 호흡기환자 표본검체 A형 확인... 지난해비 2주 빨라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다.

28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호흡기환자의 표본검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10월 4주 수집된 표본검체 34건 중 1건의 검체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H3N2형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11월 초에 첫 검출된 것에 비해 2주 정도 앞찍 확인된 것이다. 이번엔 검출된 A/H3N2형은 겨울철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되고, 1~4일 간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위생 관리



를 철저히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서둘러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서진중 감염병조사과장은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호흡기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활발해진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와 학생들은 감염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고개를 돌리고 일회용 티슈를 대고 하거나,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하는 기침예절 지키기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